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

기아차·금호타이어 이어 승소...2만여명 줄소송 예고

대기업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인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교법은 금호타이어에 이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지위도 인정했다.

광주교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7일 양모씨 등 16명(1명 중도 퇴직)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씨 등이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포스코의 사업조직에 편입됐다고 판단, 옛 파견법에 따라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25일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선고는 3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들은 1987~1988년 입사해 현재까지 포스코에서 크레인용, 코일이나 롤을 운반하거나 정비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는 합법적 도급이라며 이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광주교법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포스

코 내 또 다른 하청근로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추진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2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에 제동을 걸고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어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다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같은 제철업종인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현대제철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온 만큼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간주하거나 고용의무 적용 대상이다”고 판결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항소심에서 승소, 대법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귀순 가족과 함께 한국 입국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용호(55)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

정중희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용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현재 정부 보호 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현직 북한 대사에 서열 2위에 해당한다”며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선전 담당인 태 공사는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시기는 이르면 상순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독도 전시관.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다양한 자료로 만날 수 있는 '디지털 독도전시관'이 17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지하에 문을 열었다.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 독도전시관은 상설전시관으로 광주지역 독도 교육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공 가능

대학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인 A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신안경찰서 신설 이달말 확정

'성폭행 사건' 제기 필요성 부상

신안경찰서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신설 필요성이 각인됐고,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전남경찰청이 제출한 신안경찰서 신설 검토안은 지난달 행정자치부 심사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달말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신안경찰서 신설은 확정된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안군 압해읍에 3급지 규모의 경찰서를 신설해 70여명의 경찰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신

안경찰서 신설안이 지난달 행정자치부 심사를 통과, 이달 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의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지난해에도 아쉽게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9~11월 국회 심의를 거쳐 신설 예산이 확정된다.

신안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22배에 달하지만 1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수성과 상대적으로 적은 치안 수요 등을 이유로 경찰서 신설이 마뒀겨왔다.

신안군과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신안경찰서 유지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지난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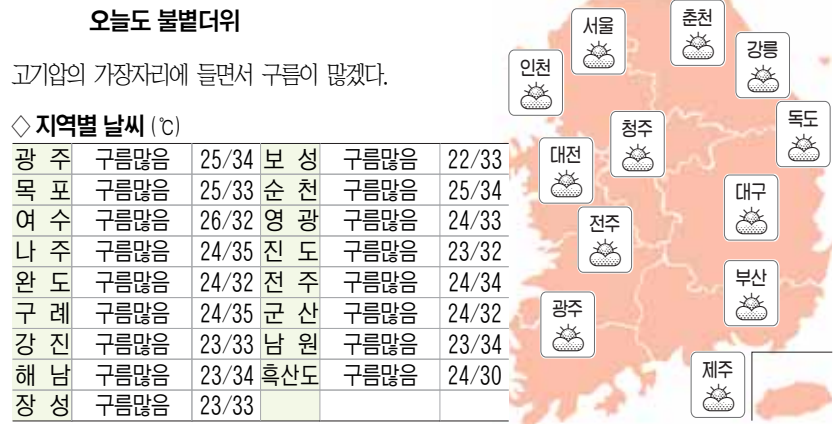
년 신안경찰서 신설안을 처음 제출한 뒤 6년째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부 심의를 통과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기재부 최종 심사에서 신설사로 수월발달사가 선정됐다.

올해에도 광주 첨단지구와 세종시, 광주 등에서 경찰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생한 섬마을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전남 22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다는 점이 환기됐다. 당시 성폭행 사건 진상 조사가 전남을 찾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혁신특별위원회는 당 차원에서 신안경찰서 신설을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남지사도 전남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4 해질 19:09
 해짐 19:18 달짐 05:27



오늘도 불볕더위
 고기압의 기장지대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맑음	25/34	보성	구름맑음	22/33
목포	구름맑음	25/33	순천	구름맑음	25/34
여수	구름맑음	26/32	영광	구름맑음	24/33
나주	구름맑음	24/35	진도	구름맑음	23/32
완도	구름맑음	24/32	전주	구름맑음	24/34
구례	구름맑음	24/35	군산	구름맑음	24/32
강진	구름맑음	23/33	남원	구름맑음	23/34
해남	구름맑음	23/34	홍산도	구름맑음	24/30
장성	구름맑음	23/33			

◇바다 날씨

시해	면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동~남동	0.5	북동~동	0.5~1.0
남해	남부	동~남동	0.5~1.5	북동~동	0.5~2.0
남해	서부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남해	서부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07	07:27
	14:07	19:30
여수	08:53	02:55
	21:29	14:53

◇주간 날씨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	☀	☀	☀	☀	☀	☀
25/34	25/34	24/32	24/33	24/33	24/33	24/33

중금속 운동장 내년에는 바뀐다

광주·전남교육청 설명회...광주 42억·전남 144억 소요

유해성분이 검출된 광주 학교의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이 마사토(흙)나 천연 잔디로 바뀐다. 전남 지역 학교도 우레탄 트랙·운동장 대신, 흙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교체 사업은 내년 에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유해물질이 조차 검출된 56개 초·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사업 설명회'를 갖고 향후 교체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학교장·교원단체·보건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을 제거한 뒤 자연친화적이고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마사토로 바꾸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들어 마사토로의 교체 방침을 설명했다.

광주교육청은 전체 교체 사업비(41억 7200만원) 중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부 특별교부금(5억8000만원)과 교육청 자체 예산(5억8000만원)을 투입, 운동장 전체가 우레탄인 학교(광양·동림·운천초)를 시작으로 유해물질과 조차 검출 학교 순으로 원직을 정해 교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교육청도 이날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172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전남교육청은 또 우레탄 트랙의 우레탄 농구장·족구장·테니스장에 대한 유해성조사도 실시, 5곳에서 유해물질이 초과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은 교체 사업비로 144억원의 가장 들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 예산 등을 확보하는 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전체 학교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발 제주행 아시아나

기체 결함으로 6시간 지연

광주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7일 오전 11시 광주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아시아나 OZ8143편이 기체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되면서 탑승객 155명이 6시간동안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대체 항공편을 투입, 오후 5시에야 운항을 재개했다. /김형호기자 khh@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사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